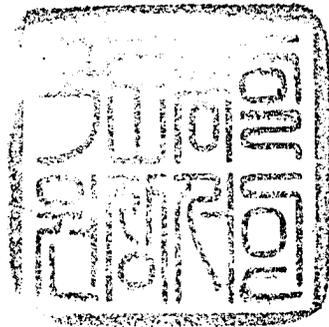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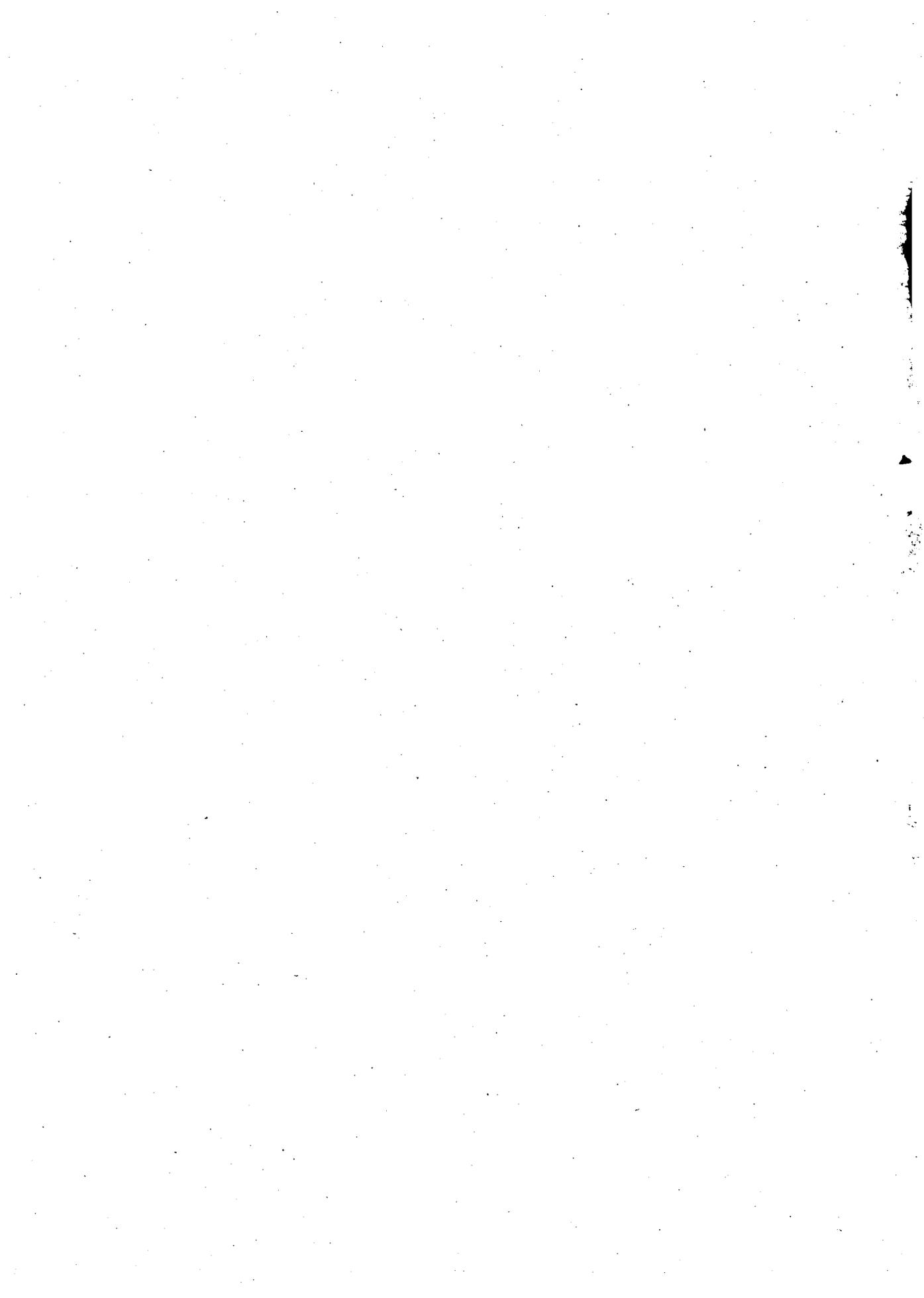
共產主義 本質



國土統一院 統一研修所

目 次

1. 序 言	3
2. 共產主義 出現的 歷史的 背景	4
3. 共產主義 歷史觀	5
4. 共產主義 經濟理論	15
5. 共產主義 政治理論	23
6. 共產主義 特性	35
7. 結 言	39



1. 序 言

共産主義는 共産黨이 그 핵심이 되어서 전개하는 世界赤化를 위한 包括的인 운동이며, 하나의 이데올로기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共産主義는 理論과 組織과 實際運動의 3가지 要素로 된 複合的인 構成體이기 때문에 우리가 共産主義의 理論과 實際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세가지 構成要素 사이의 밀접한 相互作用을 體系的으로 분석해야 한다. 共産主義 운동의 目的은 短期的으로는 非共産主義 體制를 暴力的인 方法으로 打倒하고, 共産黨이 政治權力을 장악하는데 있으며 長期的으로는 「계급없는 사회」를 제시함으로써, 共産黨 黨獨裁 體制의 유지와 세력팽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世界赤化를 달성하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하면 共産主義 운동은 첫째, 共産黨의 政權掌握, 둘째, 一黨獨裁體制의 確立, 셋째, 共産主義의 낮은 段階로서의 社會主義社會 건설, 넷째, 共産主義社會 실현이라는 허위의식과 선전을 통해서 世界赤化를 追求하는 데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1917年 러시아 共産革命 이래로 60년이 훨씬 넘는 동안에 10餘個 나라에서 共産黨이 政權을 掌握하는데 성공하고 一黨獨裁 體制를 수립해 놓기는 했지만, 共産主義가 약속했던 共産主義社會, 즉 「各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各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分配한다」는 理想社會는 고사하고, 그 中間目標인 낮은 段階로서의 社會主義社會, 즉 「各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各자에게는 능력에

相應한 分配를 한다」는 社會主義社會마저도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共產主義 革命이데올로기가 虛構라는 것을 立證하는 것이다.

2. 共產主義 出現의 歷史的 背景

19世紀에 이르러 科學의 急進的인 발달과 더불어, 進歩와 發達의 樣相은 유럽사람들을 더욱 빛나게 하였다. 그 중에서, 人間社會에 관한 새로운 관심을 갖게 하였고, 資本主義 經濟體制에서 생겨난 여러가지 폐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左翼·右翼의 격렬한 대립은 사상의 갈등을 일으켜 견잡을 수 없었다.

이 때에 理想的인 社會主義者들이 등장하였지만, 이들의 社會主義 思想은 하나의 理想社會를 기도한 것으로서, 資本主義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매우 微溫的인 것으로 보여졌다.

여기에서 急進的·革命的으로 資本主義社會의 革新을 기도한 「마르크스」와 「엔겔스」는 理想的인 社會主義를 「空想的 社會主義」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社會主義를 「科學的 社會主義」라고 일컬었다.

그러면 자칭 科學的 社會主義라고 하는 마르크스와 엔겔스의 共產主義 理論은 어디에 源泉을 두고 있는가 할 때에 그것은 獨逸의 古典哲學과 英國의 經濟學 그리고 佛蘭西의 社會主義 思想이라는 것을 쉽게 알게 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에게 특히 많은 영향을 준 것은 佛蘭西를 중심으로 한 理想的 社會主義者들의 理論과 그들의 實際的인 運動經驗이었다. 이들의 理論과 經驗을 바탕으로 마르크스는 자기의 階級鬭爭論을 형성시켰다. 마르크스는 獨逸에서 태어났지만, 佛蘭西·벨지움 등지를 전전하다가 英國으로 망명하고, 그곳에 定着하면서 英國의 資本主義에 접하게 되자 「事物은 對立·矛盾을 통하여 不斷히 발전한다」는 辨證法的原理를 資本主義 社會에다 적용하여 資本主義는 資本家와 勞動者라는 두 階級の 不可避한 鬭爭을 통하여 파멸하고, 새로운 사회 즉 共產主義社會로 발전한다는 理論을 내세웠다.

3. 共產主義 歷史觀

가. 唯物史觀의 構造

마르크스는 사람이 그의 어떠한 精神的 목적을 追求하고자 할 경우에도 우선 그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 까닭에, 사람의 생활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物質生活이며, 따라서 사람과 사람과의 關係를 支配하는 原則은 사람들이 共通的으로 追求하는 목적 즉 物質生活 資料의 生産과, 그 生産物의 交換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經濟關係가 人間關係를 支配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社會와 政治를 변천케 하는 궁극적인 원인을 어떤 高邁한 理想이나 社會正義 같은 인간의 精神에서 구할 것이 아

나라 生産과 交換方法의 변동 즉 經濟生活의 변동에서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生産에는 두 개의 커다란 要素가 있는데, 「生産力」과 「生産關係」가 그것이라고 한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物資를 生産해야 하는데, 이러한 物資의 生産에 요구되는 生産道具와 生産의 經驗과 勞動에 대한 熟練에 의하여 生産機具를 운영하면서, 物資를 生産하는 사람 즉 勞動力을 綜合하여 社會의 「生産力」이라 부르고, 生産을 둘러싸고 맺어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生産關係」라고 한다.

그런데 生産力과 生産關係는 서로 분리되어 無關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하나의 生産方式안에 包括되어 그 兩面을 이루고 있는 것이며, 生産力이 變更·發展할 때는 이에 適應하여 生産關係도 변경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生産關係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生産力에 適應한 必然的인 生産關係를 맺게 된다는 것이다.

生産活動에서 맺어진 이러한 生産關係의 總合이 社會의 經濟的 構造를 形成하는 것이고, 이 經濟的 構造야말로 下部構造 즉 社會의 기초이며, 法律·政治 등 上部構造는 이 위에 이에 대응하여 성립된다고 한다. 道德·宗教·藝術 등의 觀念形態 즉 精神文化도 또한 마찬가지로 上部構造에 속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社會의 生産力·生産方法이 변할 때는 이에 따라 生産關係가 변하고, 生産關係가 변함에 따라 그 社會의 政治·法律·道德 등이 全般的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上部構造는 下部構造에 대응하여 결정되는데, 다시 上部構造를 分析한다면, 그것은 그 當時의 支配階級の 이익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넓은 生産關係가 새로운 生産力의 발전에 대하여 장애가 되면 될 수록 양자의 鬭爭은 점점 激化하고 드디어는 社會革命이 爆發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결국 넓은 經濟構造는 깨어지고, 따라서 上部構造 즉 觀念形態도 붕괴된다는 것이다. 共產主義는 生産方法을 기준으로 하여 人類社會의 발전을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다. 原始共同社會·奴隸社會·封建社會·資本主義社會는 다같이 私有財産을 토대로한 사회였던 까닭에 社會發展은 크기는 原始共同制·私有財産制·共產制의 3段階로 구분된다고 한다.

나. 唯物史觀의 誤謬

마르크스의 唯物史觀은 그의 學說 중에서 매우 비중이 크게 평가되고 있으며, 近代 歷史學과 社會學에 여러가지로 영향을 미쳤다. 마르크스의 唯物史觀은 결국 다음과 같은 두개의 사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사회의 發展에 있어서 經濟的 要因이 기본이라는 것, 그리고 사회의 발전은 辨證法的 法則을 따른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마르크스가 經濟的 要因이라고 할 때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生産力이다. 마르크스는 헤겔의 歷史觀에 있어서의 精神에 대신하여 生産力을 原動力으로 본 것이다.

그리고 이 生産力은 自動的으로 발전하는 것이었으며, 이것을 物質의 힘이라고 速斷했다. 그러나 大局的으로 볼 때, 生産力의 발전이라는 것은 技術의 발전이고, 技術은 결코 獨自的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새로운 發明에 의하여 즉 自然科學의 발달에 依存하여 발전하는 것이다. 自然科學의 힘은 人間知能의 所産이지, 物質의 힘은 아니다.

그러므로 生産力 즉 道具나 機械 등 技術의 발달은 보다 풍부하고 좋은 生産資料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精神的 活動의 결과에 불과한 것이다. 「生産力은 機械의 힘이고, 機械의 힘은 곧 物質의 힘이고, 따라서 生産力の 發展에 따라 발전하는 人類社會는 精神力에 의해서가 아니라 物質의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 皮相的인 觀察임을 면할 수 없다.

마르크스는 生産力은 그에 적합한 生産關係를 만들고 自己發展에 의하여 현재의 生産關係가 자기에 맞지 않을 때는 이것을 깨뜨리고 새로운 生産關係를 만든다고 한다. 그리고 이때에 새로운 生産關係는 낡은 生産關係에서 손해를 보던 階級이 그의 階級的 利益을 위한 鬭爭에 의하여 創造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일정한 生産力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對應한 生産關係 즉 사회가 出現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歷史的 事實과 너무나 背馳된다.

이를테면 中國의 歷史에서는 生産方法은 과거 약 2千年 동안 停滯狀態에 빠져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生産關係는 國家社會主義로부터 封建制와 王權制가 번갈아 성립할 수 있었으며, 현재의 美國과 蘇聯은 거의 같은 (오히려 美國이 높은) 生産力 위에 하나는 資本主義이고, 하나는 社會主義라는 徹底하게 對立되는 生産關係가 성

立하였다.

그보다도 後進國으로 알려진 소련의 衛星國家들인 현재 共產國家들은 生産力은 西歐 資本主義 여러나라 보다 훨씬 뒤떨어진데도 불구하고 生産關係는 資本主義의 다음 段階라고 하는 社會主義的 生産關係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生産力의 진행에 對應하여 生産關係가 결정된다는 唯物史觀學說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生産力이 生産關係를 制約하는 것은 대체로 普遍的 現象이기는 하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生産力 위에는 반드시 하나의 生産關係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生産力은 한번 전진하면 후퇴하지 않으나, 生産關係 즉 社會關係는 사람의 感情과 意慾에 의하여 支配될 수 있는 까닭에 항상 波狀이 일어나고 起伏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동일한 生産力 위에 相違한 生産關係가 성립될 수 있고, 相違한 生産力 위에 동일한 生産關係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共產主義는 生産力이 유치하던 原始時代에도 또는 古代國家에도 生産力이 高度로 발달한 原子時代에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上部構造와 下部構造에 대해서도 같은 비판을 가할 수 있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生産力의 변동에 따라 이에 적합하도록 生産關係가 변하고 生産關係의 변화에 따라 觀念形態는 이에 對應하여 결정된다고 했는데, 이때에 對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生産關係에 의하여 觀念形態가 결정될 때에, 그 결정이 어떠한 過程을 거치는지

명확히 설명되어 있지 않으나, 法律·政治를 包含한 일체의 精神文化는 그 시대의 支配階級이 그 階級關係를 維持하는데 편리하도록 형성되고, 階級關係가 변함에 따라 이것들도 변한다는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人類의 精神文化는 生産關係라는 單一原因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것이다. 만일 上部構造가 下部構造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왜 동일한 生産條件 밑에서 사는 사람들이 각각 相異한 文化를 發展시켰고, 相異한 生産條件 밑에서 동일한 文化를 향유하고 있는지는 설명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기독교는 生産關係를 각각 달리하는 古代로마와 現代資本主義 나라들에서 支配的일 뿐만 아니라,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共產國家에서 마저 아직 말살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동일한 資本主義的 生産關係 위에서도 資本主義的 이데올로기는 물론이고 共產主義·社會主義·無政府主義에 다 파시즘에 이르기까지 異質的 思想이 복잡하게 엉켜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각각 상당한 수의 支持者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만일 政治가 經濟關係의 반영이라면 經濟關係의 成熟을 기하여 비로소 共產주의적 政治制度의 수립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共產주의자들은 우선 政權을 장악하고 政治의 힘에 의하여 共產주의적 生産關係를 수립하려고 한다. 그들이 치열하게 思想戰을 전개하는 것은 思想의 힘으로써 革命을 이르고, 革命에서 政治가 生産關係를 改造하고, 이 改造된 生産關係로써 生産力을 촉진시키는데 그 목표가 있다.

즉 上部構造의 힘에 의하여 下部構造를 결정하려는 것이다. 이러

한 것은 唯物史觀의 타당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下部構造인 經濟關係가 政治·法律·制度 및 人間의 思想을 形成하는데 큰 영향이 있다는 點을 共產主義者 못지 않게 알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精神文化의 性格이 오직 經濟關係에 의해서만 규정된다는 點은 어디까지나 배격한다.

인간의 精神文化는 經濟關係의 영향을 받기는 하나, 또 한편에서는 經濟關係를 지배하는 것이다. 세계의 비교적 커다란 사건은 物質的 條件과 人間精神의 情熱과의 相互作用에 의해서 결정된다.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은 政治와 文化活動에 앞서 우선 먹고 입어야 한다.”고 하는 만인이 다 아는 자명한 말을 되풀이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러한 活動의 條件과 原因을 混同한 것이다.

인간의 知能이 低能하여 生産力이 幼稚했던 未開한 시대에는 生活資料의 獲得이 人間生活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였으나, 人間의 知能이 발달하여 活動의 條件인 物質生活에 여유가 생기면서 사람은 衣·食·住란 기본적인 요구 이외에, 이와는 관련이 없는 복잡한 욕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活動은 인간의 文化를 多角度로 발전시켰고, 이것이 거꾸로 經濟를 支配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한 社會에는 반드시 그 生産關係에 적응하는 하나의 文化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文明社會의 文化가 언제나 複數文化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唯物史觀의 批判은 그 構造에 대해서 보다는 오히려 「共產主義 社會는 반드시 오고야 만다」고 하는 非科學的인 미래의 예언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마르크스는 人類의 社會發展을 原始共產制·古代社會·封建社會·資本主義社會로 段階的으로 구분하고 이들 사회는 각각 그 内部的 矛盾에 의하여 다음 段階로 발전해온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私有財產制의 마지막 段階인 資本主義社會도 역시 그 自體內的 矛盾으로 말미암아 崩壞하고 共產主義社會로 넘어갈 것은 하나의 「歷史的 必然」이라고 주장했다.

마르크스가 자기의 社會主義를 「科學的 社會主義」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空想的 社會主義」라고 하여 멸시한 이유는 낡은 사회가 몰락하고 새로운 사회가 형성되는 것은 社會自體의 運動法則에 의하는 것이며,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歷史的 必然이라는 점을 자기가 밝혔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마르크스는 적어도 理論上으로는 資本主義制度는 勞動을 착취하는 不當한 사회이므로 이것을 철폐하고 理想的인 共產主義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資本主義社會는 발전하는 生産力과 현존하는 生産關係와의 충돌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意志와는 관계없이 스스로 멸망하여 共產主義 社會가 온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人類社會가 變遷해 왔다는 것은 시인한다. 그리고 資本主義는 하나의 固定된 現象이 아니고, 따라서 이것은 소멸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可能性이지 必然性은 아니다.

설혹 資本主義가 破滅한다고 해도 그 결과가 반드시 共產主義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첫째, 資本主義가 파멸한다고 해도 그 결과로 共產主義가 오지 않고, 共產主義 理想과는 原則에 있어서 無關係한 어떤 獨裁를 출현시키는 상태로 가게 될런지도 모르고, 둘째, 노동계급이 승리하여 사회를 이끌고 나가 본 결과 共產主義 組織은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社會科學 영역내에서의 「不可避」 또는 「必然的」이라는 것은 自然法則的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만 어떤 傾向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향은 우리들의 관찰의 대상인 사회에서 장차 무엇이 발생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만 그것이 우리들이 관찰한 기간에 있어서와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고, 만일 다른 要因이 침입하지 않는다면, 장차 거기에서 무엇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키는데 불과하다.

만일 共產主義社會의 出現이 生産力의 발전으로 생기는 必然的 結果라면, 왜 사람들은 個人的인 安樂과 生命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공산주의 운동에 뛰어들어 갈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은 당연히 제기되는 의문이다.

이것은 唯物史觀에 대한 가장 初步的인 質問이기는 하나 동시에 가장 根本的인 質問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촉구하여 왔으나 그 결과는 만족한 것이 아니었다.

마르크스는 革命理論家인 동시에 革命實踐家였던 만큼 세계를「解釋」하는데 滿足치 않고 그것을 實踐的으로 「變革」할 것을 희망하였으나 엄격한 의미에서 實踐과 必然은 兩立할 수 없는 것이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共產主義는 歷史的 必然에 의하여 人間의 慾望이나 意志와는 關係없이 불원간 오고야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하여 實踐하자는 것은 可笑로운 일이다.

實踐이라는 것은 언제나 價値있는 理想을 세우고 그것을 이룩하기 위하여 애쓰는 행동이다. 만일 이러한 행동이 없을 때는 그 理想은 실현되지 않는다는 可能性을 容認하지 않는다면 實踐은 전혀 無意味하게 되고만다.

「共產黨 宣言」에서 口號로 부르짖는 것처럼 “萬國의 프롤레타리아트여 團結하라”고 共產주의를 위한 實踐을 외칠 때는 이미 共產주의는 價値있는 것인데, 만일 프롤레타리아트가 단결하지 않는다면 이 價値있는 共產주의가 오지 않을 可能性도 있다는 것을 前提로 하는 것이다.

必然적인 것에는 본래 좋다든가 나쁘다든가 하는 價値判斷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인류의 역사가 辨證法的 發展過程을 거쳐서 必然的으로 共產主義社會에 도달한다는 것을 말하였으나 다시 共產主義社會는 무엇으로 발전하는지 안 하는지에 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그들의 歷史를 취급하는 태도에서 느낀 인상으로는, “공산주의사회는 人類 最終의 歷史的 狀態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發展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論議할 必要

도 없다”는 것으로 간주된다.

말하자면 辨證法의 法則은, 共產主義者들이 원하는 共產주의사회가 實現될 때까지는 歷史를 支配하고 일단 共產주의가 實現되면, 突然히 停止하고 마는 것 같은 感을 준다.

여기서 우리는 觀念論을 克服했다는 마르크스가 無意識中에 觀念論的인 宗教史觀에 사로잡혀, 歷史를 어떤 既定目標를 向하여 달리는 進行過程인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4. 共產主義 經濟理論

가. 共產主義 價値觀

(1) 勞動價値說

勞動價値說은 마르크스 經濟理論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이것을 基盤으로 하여 마르크스는 剩餘價値說을 誘導하고 資本主義 발전과 그 沒落에 대한 理論을 전개했다. 따라서 勞動價値說이 무너지면 搾取의 理論的 根據가 없어지게 되고, 동시에 마르크스 經濟學의 전체 理論體系가 무너지게 된다. 마르크스의 勞動價値說은 한 상품의 價値가 社會的으로 필요한 平均勞動量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다.

勞動價値說은 허다한 論理的 矛盾을 內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勞動價値說에서 말하는 바에 따르면 商品의 價値는 投下된 勞動의 量에 달려있다고 하는데, 事實上은 異質勞動을 同質化 내지 等質化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둘째, 勞動價値說은 商品價値의 形成에 있어서 勞動 이외의 生産要素의 役割을 무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큰 잘못이다.

셋째, 勞動價値說에서는 결국 商品의 價値는 勞動에 의하여 결정되고, 勞動의 價値는 勞動生産物의 價値를 설명하게 되고, 그 勞動生産物의 價値는 또 다른 勞動으로 설명하게 되어, 循環論法의 誤謬를 범하고 있다.

넷째, 勞動價値說을 가지고는 勞動生産性의 變化를 설명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勞動價値說은 一定量의 價値가 모든 階級 사이에 어떻게 分配되는가 하는 分配論으로서는 성립될지 모르나 總生産의 增大를 설명하는 데는 불충분하다.

(2). 剩餘價値說

먼저 이 잉여가치설의 근본적인 難點은 生産物의 價値나 利潤의 근거가 노동만에 의해서 創造된다는데 있다.

어떤 生産物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勞動 이외에도 資本·原料·企業能力 기타의 生産要素들이 필요한 것이다.

資本에 의해서 機械나 原料가 구입되고 노동자가 고용되어서 비로소 商品이 生産된다. 이와 같이 商品의 價値는 資本과 勞動의 協同으로 生産되기 때문에 그 價値는 당연히 資本과 勞動의 양편에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마르크스는 그 價値가 노동만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勞動者가 그

價値를 전부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노동의 生産性만 인정하고 資本의 生産性은 인정하지 않는데 緣由하는 것이다.

오늘날 高度로 發達한 産業體制에 있어서 資本의 重要性은 강조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며, 資本의 生産性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으로 생산된 잉여가치를 착취한다는 이론은 아무런 타당한 근거가 없다.

마르크스의 價値論에서는 商品의 供給만이 問題視되어 있고 需要는 問題視되어 있지 않다. 잉여가치는 오직 노동에 의하여 創出된다는 이론은 獨斷論에 불과하다. 商品의 價値라는 것은 오직 投下된 勞動이나 기타의 生産要素에 의해서만 創出되는 것이 아니다. 그 生産物에 대한 需要와 供給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노동이나 기타의 生産要素는 그 商品의 供給을 결정하는 生産費를 구성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生産費란 商品의 價値를 形成하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商品의 가치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生産費를 가진 똑같은 生産物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需要가 많을 때에는 價値가 많고 그 반면에 需要가 적어진다면, 가치가 적어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近代經濟學者들이 利潤의 源泉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윤이 商品流通過程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주장한다고 비난하면서 이윤은 生産過程에서 나온다고 하였다. 이것도 또한 誤謬이다.

가령 商品의 生産量(供給量)에 비해서 需要量이 많을 때는 그 商品이 高價로 되기 때문에 利潤이 발생된다.

또 같은 商品을 生産하는데 있어서도 能率이 좋은 企業은 能率이 나쁜 企業보다는 生産費의 절감으로 인하여 이윤을 얻게 되는

것이니, 이 경우에 상품의 가치는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교환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交換比率은 需要와 供給의 관계에 따라서 변동되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마르크스가 말한 것처럼 等價交換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利潤은 商品의 流通面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하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等價交換을 前提로 했기 때문에 이윤도 生産過程에서 생긴다고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貨金の 水準은 勞動力의 再生産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마르크스의 주장도 매우 터무니 없는 것이다. 貨金は 根本的으로는 勞動에 대한 需要와 勞動의 供給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노동에 대한 수요는 또한 그 노동이 생산하는 生産物에 대한 需給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 經濟學에 있어서의 하나의 常識으로 되어 있다.

貨金水準은 長期的으로 본다면 勞動의 限界生産性を 반영하는 것이며, 勞動의 限界生産性が 上昇함에 따라서 貨金水準도 上昇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타당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도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다.

마르크스는 勞賃이 항상 勞動者의 最少限의 生産費를 保障하는 線에서 결정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하등의 근거 없는 주장이다. 經濟가 高度로 발달한 歐美의 경우를 보면, 勞賃 역시 勞動生産性和 같이 항상 上昇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마르크스가 예측한대로 “産業豫備軍이 必然的으로 대두하여 이들이 굶주림에서 헤메고” 있는 現狀을 先進資本主義 國家의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初

期 産業資本主義 時代に 있어서 部分的으로 일어났을지 모르는 人口의 都市集中 現狀에 따르는 노동자들의 貧困狀態를 資本主義 生産體制에 必然的으로 수반하는 現狀인 것처럼 생각한 마르크스의 視野는 매우 좁았다고 評價받을 수 밖에 없다.

최근에 와서 先進各國에서 이른바 「生産性 賃金制」라 하여 勞賃의 上昇率을 勞動生産性的 上昇率과 一致하도록 法的인 措置를 취하고 있는 현상은 마르크스의 豫言과는 매우 判異한 현상이다.

만일 마르크스의 理論이 옳다면 勞賃水準은 결국 노동자들의 肉體的 生存을 보장하는 線에서 決定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 線 以上の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면 마르크스의 잉여가치설은 無意味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왜냐하면 勞賃이란 그 上昇의 上昇線이 없어지게 되며 勞動搾取의 理論 즉 잉여가치설은 根據가 없게 되고 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마르크스 主張에는 一貫性이 보이지 않는다.

마르크스는 資本主義社會에서 자본가들은 부단히 技術革新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하였는데 그가 말한 바와 같이 勞賃이 항상 노동자들의 最低生活費 線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면 技術革新도 계속될 수 없는 것이다.

技術이 점점 高度化됨에 따라서 노동자들은 마르크스가 생각했던 것처럼 근육의 力이 아니라 높은 水準의 敎育과 知識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마르크스가 머리 속에 그렸던 賃金水準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와 같은 技術工으로는 養成될 수 없으며 또 이들이 없

이 기술의 革新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와 같은 高度의 기술을 지닌 노동자에게는 사실상 많은 資本이 投下되어 있는 것이다. 즉 社會가 發達하고 産業體制가 複雜化됨에 따라서 노동과 자본의 구별이 不分明해지고 점차 그 의미가 적어진다.

近來 經濟學에 있어서는 人間資本이라는 개념이 점차 普遍化되어 가고 있으며 富도 物質的인 富 뿐만 아니라 人間에 凝結된 富가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現代의 노동자는 마르크스가 말하는 바와 같은 畝주립에서 허덕이는 「근육의 뭉치」가 아니라 相當한 社會的 富의 投下로 이루어진 知識과 技術을 지니고 있는 人間資本이며, 그들에 대한 報酬도 마르크스가 말한 바와 같은 비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先進 資本主義國家들의 경우를 보면 매우 뚜렷하다.

勞働者에 대한 搾取가 存在한다면 資本主義 社會에 있어서의 資本家에 依한 것보다는 오히려 「勞働者들의樂園」을 만들겠다는 共產主義社會 바로 거기에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共產主義 社會에서의 剩餘生産物은 國民의 福祉向上을 위해서 使用되지 않고, 軍事力이나 獨裁機構 強化에 사용되거나 共產黨員·行政官僚·軍幹部등 「새로운 階級」의 사치스러운 生活을 위하여 탕진되고 있는 바, 共產主義 內部에서야말로 勞働者들에 대한 搾取가 극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資本主義 沒落理論

마르크스主義에서는 資本主義가 必然的으로 멸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은 歷史가 證明해주고 있기 때문에 구구한 설명이 필요치 않다.

오늘날 우리가 資本主義라고 부르는 經濟體制는 오히려 “自由企業制度”라고 부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制度는 과거 200年 동안의 生成·發展過程에서, 자기 자신을 살려나갈 活力과 彈力性을 갖추게 되었다. 이 制度의 최대의 長點은 국민 각 個人이 자기의 創意性을 最大限으로 發揮할 수 있다는데 있다. 이와 같은 創意性이 發揮되는 조건은 각 國民이 政治·經濟 및 社會的으로 자유롭다는 데 있다. 이 制度 밑에서 生産力이 發揮되었고, 技術의 發展이 가장 눈부시게 일어났던 것이다.

이러한 資本主義 國家의 技術 進歩를 뒷받침하는 것은 旺盛한 企業家 精神이고, 이러한 創造的인 企業家 精神의 작용이 技術革新과 投資의 증가를 가져와서, 마르크스가 예언한 바와 같은 資本主義의 停滯와 過剩生産을 막아 資本主義의 活力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다 하였다. 또한 이 制度의 둘째 長點은 景氣變動의 원인이 되는 生産과 消費의 不均衡을 調整하는 장치가 발달했다는 것이다. 黨의 명령에 의하여 計劃的으로 生産·消費되는 共產國家의

경우에 있어서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景氣變動을 가져오는 수가 많다.

資本主義 經濟發展의 역사를 보면, 이와 같은 결합은 매우 적절하게 시정되어 왔다. 각종 통계가 매우 잘 정비됨으로써 이것을 기초로 企業이 經營에 임하게 되며, 또 政府가 政策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制度의 세번째 長點은 自動安定裝置의 작용만으로 景氣의 安定維持가 어려운 경우 政府는 財政·金融上の 政策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資本主義가 發展해 온 經路로 살펴볼 때,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國家의 役割이 크게 增大된 現象이다.

특히 第2次 世界大戰 이후에는 이와 같은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마르크스가 말한 “資本主義 國家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도 발생할 가망성은 없다. 마르크스의 理論과는 달리 資本主義的 生産力이 가장 발전한 資本主義 國家에서는 소위 “資本主義의 外皮가 破裂” 되지 않고 그대로 存續하고 오히려 資本主義가 가장 뒤 떨어진 몇 나라에서 破局이 발생했던 것이다.

資本主義 體制에 矛盾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制度가 現代的 民主政治와 결부되어 발전할 수만 있다면, 모든 면에서 共產主義 (社會主義) 體制보다는 훨씬 우월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5. 共產主義 政治理論

가. 階級國家觀

- (1) 國家의 起源을 氏族社會 內部에서 전개된 階級對立에서 찾는 共產主義者들의 國家起源論은 共同體의 共同業務 處理가 權力化하고 世襲化함에 따라 政治라는 現象이 發生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社會階級の 첫 형태인 奴隸制度가 생겼을 때, 所有者라는 계급의 존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國家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思考는 모든 이데올로기를 經濟 특히 生産關係의 反映으로 만 인정하는 誤謬를 범한 것이다.

인간은 歷史以前의 時代에도 數千萬年을 살아왔다고 하지만 群居生活 時代의 인류는 血緣關係에 입각하여 原始的 共同生活을 營爲하였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인간생활의 발전 과정에서 공동생활의 內的 必要性에 따라 統制組織을 갖게 된 것도 사실인 것 같다. 血統婚姻의 禁忌, 地緣定着 關係, 征

服 關係, 宗教 關係, 私有財產制度的 確立, 階級の 分化, 財産 및 地位의 世襲制度 確立 등은 모두 國家가 요구하는 統一性과 機構를 充足시키는 要素인 것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의 國家起源論은 여러가지 國家發生 要因中 유독 계급발생 만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 (2) 國家의 本質은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階級搾取에 있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국가 안에 계급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해서 국가를 계급착취의 도구로 보는 것은 국가의 存在理由를 무시한 지나친 思考方式이다.

國家가 階級對立의 所産이며 搾取를 목적으로 하는 階級抑壓의 기관이라는 것은 妥當한 見解라고 할 수 없다.

우리들의 경험적 사실에서 판단해 본다면, 인간이 기록에 남긴 數千年 역사에 있어서 국가를 유지해 온 것은, 국가가 支配階級の 抑壓機關으로서 존재했기 때문이 아니다. 인간 전체를 위하여 그것이 보편적 가치를 가진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이다. 즉 국가가 公共的 性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國家라고 하는 것은 국가 사회의 秩序維持와 福祉增進을 목적으로 한 機能的 組織의 實體로서 국가 사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國家는 構成員인 소속 個人을 統制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인으로 구성되는 團體까지 통제할

수 있다. 물론 이때에 국가의 통제에 복종하지 않는 자가 있는 것을 예상해서 국가는 強制力과 強制機構를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國家機能의 하나는 계급적 지배나 착취를 배제하고 계급 대립을 완화시키는데 있다.

(3) 國家를 惡이라고 보는 공산주의자들의 思考方式은 不當하다.

마르크스·레닌주의 國家論에서는 하나의 前提가 있다. 그들은 自然을 善이라 하고 國家를 惡으로 본다. 인간은 主體性도 創造性도 없이 단지 환경과 역사적 必然性의 지배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 국가론의 大前提인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國家도 인간이 만든 것이다. 더욱이 現代國家가 強壓的인 기능 이외에, 外部로 부터의 侵略에 대해 자기 나라의 국민과 국토를 방위하며, 대내적으로는 국민의 生命과 財產을 保護하는 安全機構로서의 국가 役割 수행의 功勞도 크거니와, 教育, 保健, 社會保障制度, 交通, 遞信 기타 公共福利의 기능을 수행한데 대해서도 巨大한 功獻으로 찬양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모든 것은, 국가가 지배계급의 이익 보다도 대중 즉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被支配階級·被搾取階級の 이익이 더 크게 배려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4) 共產主義 敎理에서는 國家를 公共福祉의 向上을 위한 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共產黨이 지배하는 국가의 중요성은

강조하고 있다.

공산주의 교리는 現存 프롤레타리아 獨裁政權을 正當化 하기 위하여, 국가가 없는 궁극적인 사회의 幻想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共產國家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非共產國家에 있어서의 國民의 忠誠과 義務를 전혀 무시한다. 非共產國家의 共產主義者들은 스스로 異邦人으로 자처하고, 저들의 진짜 고향은 歷史的 未來에 있으며, 모든 忠誠을 黨과 이데올로기에 바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非共產社會의 滅亡을 確信하고, 大衆을 現存國家로 부터 分離시키고 幻想의 世界로 引導하려고 한다.

나. 階級鬭爭論

(1) 階級鬭爭 概念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개념으로 하나의 계급이 行動으로써 다른 계급에 對立하는 투쟁을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로 하는 계급투쟁은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계급투쟁에 국한시켜 말하는 것이다.

「共產黨 宣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즉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社會의 歷史는 階級鬭爭의 歷史이다. 抑壓者와 被抑壓者는 언제나 對立하여, 어떤 경우에는 暗暗裡에 또 어떤 경우에는 公公然히 끊임 없는 싸움을 한다.”

“그 싸움은 全社會의 革命的 改造로 끝나거나 또는 싸우는 계

급의 共通的 沒落으로 끝난다.”

“全社會는 점점 두개의 敵對陣營 즉 직접 대립하는 二大階級으로 分裂된다.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가 그것이다.”

以上에서 인용한 몇가지 句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階級 鬭爭에 관한 思想은 暴力革命, 프롤레타리아 獨裁思想과 더불어 공산주의의 中心的 政治思想이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계급투쟁에서 승리를 거둘때까지는 계급투쟁을 不可避하다고 보는 것이 계급투쟁 理論의 結論이다.

(2) 階級の 概念

階級鬭爭 理論에 있어서 큰 결점이 되고 있는 것은 階級에 대한 개념이다.

즉 계급투쟁론에 의하면 “계급이란 共通的 經濟的 利害關係를 가지며, 그 意識에 있어서 連結되는 사람들의 集團이다. 따라서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는 根本적으로 오직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만이 存在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큰 誤謬를 범한 계급 개념이다.

그리고 계급투쟁론에 의하면 이들 계급의 精神的 性質은 그 經濟的 性質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精神的 階級構成과 經濟的 階級構成은 서로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도 誤謬가

있다.

階級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社會의 有機的 構成部分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결코 合計에 의하여 成立되는 團體로 해석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經濟的 계급구성도 반드시 統一的인 것은 아니다. 勞働者만 하더라도 그 自體 안에 熟達된 노동자와 高級勞働者가 있는가 하면, 未熟한 노동자와 低級勞働者가 있고, 또는 原料를 生産하는 노동자와 加工을 하는 노동자가 있고, 鐵道從業員과 貨物自動車 從業員이 있다.

이 사람들은 同一한 노동자이면서도 經濟的인 면에 있어서 엄연히 대립되어 있다. 이 밖에도 農業勞働者·小農民·小手工業者가 있고, 또한 高等精神勞働者, 다시 말해서 技術者·辯護士·官吏·會社 重役·教師·醫師·銀行員·監督 기타 俸給生活者들의 異質的인 職業的 集團이 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의 精神的인 性質은 전혀 經濟的 性質 위에 구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3) 相互協調

계급투쟁 이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계급은 필연적으로 서로 反目해서 서로 투쟁하는가 하면, 결코 그렇지는 않다. 현실에 있어서 계급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社會全體를 구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투쟁에 앞서서 相互間에 협조하는 것도 사실이다.

人間社會에는 때때로 계급투쟁이 있었고 또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社會의 本質로 부터 발생하는 必然的인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社會의 本質에 背反되는 變態的 현상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社會의 本質은 共同的 關係・心理的 關係・文化的 關係 등으로 얽혀 있는 것이다.

夫婦間에 살다 보면 때로는 싸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夫婦싸움이 家族의 本質的인 現象은 아니다.

家庭生活에 있어서 夫婦싸움이 있는 것을 보고, 곧 “家族의 歷史는 夫婦싸움의 歷史다” 이렇게 斷定한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판단은 없을 것이다.

과거의 歷史的 事實을 公平하게 관찰할 때 지금까지의 人間社會의 歷史는 계급투쟁의 역사였다고 보는 것은 극단적인 一面的 見解라고 보여진다. 이것은 部分的인 事實을 全面的인 事實로 誇張하고 歪曲하려는 데서 나오는 견해라고 생각된다.

인간에게는 生存을 위하여 싸우는 生存競爭의 面도 있지만 그것 못지 않게 相互協調의 面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4) 中間階級

계급투쟁론에서는 近代社會의 階級을 分析하는데 있어서 그 기본적인 계급으로서 地主・資本家・勞動者階級을 설명하고 있다. 기타의 中間階級은 머지않아 몰락하여 勞動者階級으로 흡수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中間階級은 몰락하지 않고 점차로 증대되었다.

中間階級은 그 生活上의 利害關係에 있어서나 社會感情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부르주아적도 아니며, 또 결정적으로 프롤레타리아적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중간계급은 個人主義的이며 競爭的이다.

中間階級の 態度는 階級的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國民的이며, 部分的 階級利益 보다는 全體的 利益을 중요시한다.

中間階級은 階級的으로 행동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계급은 그때 그때의 大勢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많다. 中間階級은 사실상 階級鬭爭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 공산주의 이론에서 몰락해 버린다고 예언한 이 中間階級이 오늘날 몰락하기는 커녕 점점 肥大해져서 한 社會 한 國家의 中樞 役割을 하고있다.

先進國家의 社會構造는 피라미형이 아니라 다이아몬드형으로 변하고 있다.

이 中間階級이 肥大해져서 國家의 中樞的 役割을 담당하면서 부터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中間에서 緩衡作用을 하는 限, 階級鬭爭의 可能性은 지극히 희박해져 간다는 것이다.

(5) 階級과 民族

民族이라고 하는 것은 血緣을 기초로한 文化的 類似性에 따라 自然的으로 발생한 것이다. 그에 比해서 階級이라는 것은 人爲的인 要素를 包含한 利害關係에 따르는 結合으로 成立하는 것이다. 따라서 發生的으로 볼 때, 民族은 단연히 階級에 앞선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 民族은 基本的이고 階級은 派生的이다. 또한 民族은 不變的이고 階級은 可變的이다. 韓國民族은 아무리 變해도 韓國民族이지, 하루아침에 슬라브族이나 게르만族으로 變할 수는 없지만 부르쵸아지는 언제든지 프롤레타리아로 變할 수 있고 프롤레타리아는 하루아침에 부르쵸아로 變할 수 있는 것이다.

階級の 對立과 鬪爭이 歷史를 움직이는 原因의 하나로서 그 內容의 一面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 그보다도 民族이 世界歷史의 擔當者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있다.

인간은 그가 속하는 階級 여하에 따라서 利害關係나 思想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그가 屬하는 民族에 따라 한층 더 利害와 思想을 달리한다. 「共產黨 宣言」에서는 “勞動者에게는 祖國이 없다”고 했지만, 오늘날 까지 여러나라의 노동자들은 그가 屬한 民族을 위해서 敵對國家인 다른나라 노동자와 싸웠다.

世界大戰을 통해서 볼 때 世界大戰 자체가 계급투쟁이 아닐뿐 아니라, 英國과 獨逸의 노동자들은 각기 자신이 속해 있는 노동자계급 즉 프롤레타리아를 위해서 敵對國의 프롤레타리아를 도와준 것이 아니었다. 비록 속해 있는 계급은 프롤레타리아 일지언정 자신의 民族과 祖國의 勝利를 위해서, 英國의 勞動者는 獨逸의 勞動者와 獨逸의 노동자는 英國의 노동자와 싸웠던 것이다.

지난날, 우리 祖國이 日本에 의해서 壓制를 당할 때, 韓國의 勞動者는 日本의 勞動者를 프롤레타리아 라고해서 손잡고 團結하지는 않았다. 日本의 노동자들은 우리나라 노동자를 團結하기는 커녕 멀

시했던 것이다.

「共產黨 宣言」에서 부르짖는 것처럼 人間은 그렇게 간단하게 民族을 초월해서 “萬國의 프롤레타리아여 團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 暴力革命論

소위 프롤레타리아 革命을 신봉하는 共產主義者들은 暴力革命을 正當化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理論을 展開하면서 그것이 社會發展法則에 부합되는 進歩的인 革命이라고 역설해 왔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 暴力革命論은 다음과 같은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첫째, 프롤레타리아 革命은 暴力을 「必要惡」으로 보지 않고, 프롤레타리아 獨裁에 「必須的」인 것으로 보고 있다.

共產主義者들은 暴力을 숭배하며 共產主義 革命戰術 형태의 하나인 「테러戰術」을 革命에 限定하여 適用하는 것이 아니라 政權을 掌握하고, 프롤레타리아 獨裁를 確立한 후에도 계속 活用한다. 둘째로, 共產主義 階級革命論은 普遍 妥當性있는 政治理論이 아니라 特定國家의 暴力革命을 合理化한 것에 불과하다. 레닌의 革命觀은 러시아의 革命을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英國이나 美國 등 資本主義의 건전한 발전을 설명할 수는 없다. 동시에 레닌主義는 美國이나 英國에서 共產主義가 부진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세째, 프롤레타리아 革命論에서는 프롤레타리아 階級과 指導政黨인 共產黨

의 歷史的 使命을 過大評價하고 있다. 民主政治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과 자격을 구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革命勢力은 먼저 國民 多數의 信賴와 支持를 얻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오늘날 자유롭고도 合法的인 選舉節次를 통하여 共產黨이 執權한 나라 즉 國民이 스스로 共產主義를 택한 나라는 단 한나라도 없다는 사실이 이것을 증명해 준다. 共產主義者들이 堅持하는 革命觀은 가혹한 強制를 강요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비굴한 僞善을 자행한다. 자기의 주장을 狂信하고 相對方을 全的으로 무시하는 共產主義의 思考形態는 妥協의 餘地를 스스로 抹消한다. 네째, 프롤레타리아 革命은 언제나 革命에 積極 參與한 少數 集團에 의하여 수행된 것이지 결코 대중의 지지를 얻은 革命은 아니었다.

프랑스 革命 등 과거의 革命에서는 戰爭 또는 國家機構의 붕괴를 필요로 하지 않았으나, 프롤레타리아 革命에서는 전쟁 또는 國家機構의 붕괴가 革命達成의 必要條件으로 되어있다. 과거의 革命에 있어서는 政權 收奪 過程이 끝나면 革命的 수단이나 革命政黨의 必要性도 소멸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 革命에 있어서는 革命的 手段과 革命形態가 永續될뿐 아니라 共產黨의 中央 集權과 이데올로기의 獨占이 강행되었다.

라. 프롤레타리아 獨裁論

프롤레타리아 獨裁의 목적은 프롤레타리아의 解放에 있다고는 하

지만, 階級獨裁와 階級解放의 美名下에 全體主義的 一人獨裁. 혹은 極少數의 集團獨裁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 共產主義의 실태이다.

첫째, 프롤레타리아 獨裁는 競爭的 政黨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다. 프롤레타리아 獨裁는 唯一黨의 獨裁政治이다. 그곳에서는 立法機關이 民意를 대표하거나 중요한 政策 또는 法律案을 直接立案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複數政黨의 존재가 불필요하다. 唯一黨인 共產黨은 政策을 국민에게 強要하는 機關이며, 政府도 黨의 政府이고, 軍隊도 黨의 軍대이다. 國家도 黨의 國家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共產主義者는 國家나 軍隊를 獨占的인 무기로 취급한다. 둘째, 프롤레타리아 獨裁는 현명한 政治를 보장하지 못한다. 獨裁者 스탈린의 경우처럼 대중을 組織, 煽動하여 暴力으로써 政敵을 물리치고 獨裁者의 지위를 차지한 것이지 높은 政治的 識見이나 社會經論 혹은 탁월한 領導力이 인정됨으로써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은 결코 아니다. 政治의 價値는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評價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프롤레타리아 獨裁의 權力者는 스스로 全知全能한 支配者인 것처럼 自畫自讚하며, 共產黨은 過誤를 범하지 않는다고 장담한다.

셋째, 프롤레타리아 獨裁政權의 기초는 國民多數의 自由意思와는 無關하며, 국민을 支配하는 獨裁者의 強制力에 있다. 원래 獨裁의 合理性은 特定 목적과 일시적 예외라는데 있고, 獨裁的인 絕對權力은 참으로 自由公正한 國民意思에 입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프롤레타리아 獨裁政權은 국민의 自由意思에 의한 지지가 없이 한 사

람 혹은 階級이라는 이름의 少數 集團으로서 「人民의 意思」를 자칭하며 強制와 暴力으로 국민의 지지를 조작한다.

6. 共 産 主 義 特 性

가. 一元論性

마르크스·레닌主義란, 安定된 世界나 한 나라의 現存秩序를 破壞하며, 음모적인 手段과 方法으로 合法的인 政權을 전복하려는 「陰謀의 科學이며, 破壞의 技術」이라는 규탄을 받게 된다.

마르크스는 人間疎外의 概念을 極端的으로 單純化하여, 병폐의 원인이 오직 私有財産 制度에만 있는 것으로 보았고 따라서 私有財産 制度만 철폐시키면 즉각적으로 모든 사람은 자유를 회복하고 社會惡이 全滅되는 것같은 유토피아적인 理想에 빠졌다. 또 이러한 유토피아적인 理想論을 그의 제자들이 그대로 이어 받아서 전파시키고 있는데 대해서는 共感할 수 없다.

마르크스와 그의 繼承者들은 私有財産이니 착취니 하는 극히 협소한 經濟的인 概念에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보다 넓은 휴머니즘적인 勞動概念 특히 主體的이며 精神的인 자유의 概念에서 出發하고 또 그 것을 發展시켰어야 할 것이었는데, 그러한 면은 끝내 이루어 놓지 못했다. 오늘날 마르크스 理念에 의하여 私有財産 制度가 철폐된 소련 등의 共産國家에서 人間の 자유와 個性 그리

고 휴머니즘이 어떠한 運命에 놓여 있는가를 直視할 때, 우리는 마르크스의 思索의 一面性과 盲點을 크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마르크스主義는 .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들 내부에서조차 많은 分派를 낳아 서로 教條主義니 修正主義니 하며 지금도 치열한 이데올로기 鬭爭을 展開하고 있다.

이러한 理念鬭爭에서 마르크스主義는 더욱 一元論的인 教理로 化石化되어 버렸다. 이리하여 마르크스主義는 全體主義를 特色으로 하는 一元論的인 教理이며 組織이며 行動體系라는 斷定을 내리게 하였다. 다시 말하면 마르크스·레닌主義는 하나의 目的·하나의 가르침, 하나의 權威와 하나의 方法으로 集約된 것임을 뜻한다.

나. 信仰性

오늘날의 共產主義者들은 마르크스·레닌主義를 하나의 絕對的인 信仰·宗教로 深化시켜 놓았다. 그것은 마르크스主義의 獨斷論的 성격 때문이다.

오늘날 이와 같은 共產主義者들의 獨斷論的인 信仰에는 ① 共產黨만이 眞理를 가지고 있다는 고집, ② 共產黨의 가르침과 행동에는 絕對的으로 誤謬가 있을 수 없다는 생각, ③ 共產黨의 行動은 오직 善에만 到達한다는 教理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古典的인 마르크스主義에 적용시켜 보면 다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즉 ① 自然의 모든 過程은 辨證法的으로 發展한다는 獨斷論, ② 마르크스가 叙述한 바와 같은 巨大하고 絶對적인 兩大階級이 존재한다는 생각, ③ 階級對立이 모든 歷史의 基礎라는 생각, ④ 階級없는 社會가 敵對的인 두 階級 사이의 투쟁에서 不可避하게 出現한다는 생각, ⑤ 階級意識이라는 神秘스러운 紐帶가 “共産黨이 勞動者들의 利益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다.”는 생각, ⑥ 프롤레타리아가 러시아에서 승리했다는 생각, ⑦ 러시아 10月革命은 마르크스가 예언한 프롤레타리아 革命이었다는 생각, ⑧ 勞動者 農民이 共産黨을 支持한다는 생각, ⑨ 共産黨이 支配하지 않는 모든 국가는 銀行家나 財閥이 支配한다는 생각 등이다.

그러면서도 共産主義者들은 그들이 信者라는 것과 그들의 敎理가 信仰이라는 것을 단호하게 부인하면서 마치 과학의 十字軍인듯이 자부하고 있다.

共産主義社會 到來의 소위 歷史的 必然性을 保障하는 것은 궁극에 있어서는 發展하는 生産力이며, 이것이 人間의 歷史와 運命을 絶對적으로 支配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마르크스主義는 正面에서는 宗教的인 神을 거부하면서도, 裏面에서는 物質的 生産力에 대한 信仰을 불러 일으키는 自體矛盾에 빠지고 있다.

그리하여 마르크스에 있어서는 物質的 生産力이 사실은 神이며, 인간은 物質的 生産力의 道具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階級 사이의 증오·階級鬭爭만이 결과되는 結果로 物質的 神을 인간의 意識안에서는 사랑의 神으로서가 아니라 증오의 神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소위 「鬭爭的 無神論」이라는 종교인 것이다.

다. 排他性

마르크스主義는 그의 獨斷論的인 성격때문에 일체의 寬容性和 融通性을 상실하고, 극단적인 편협성과 배타성을 지니게 되었다. 즉 共產黨은 가혹한 獨裁와 彈壓政治로 타락하는 숙명의 길을 걷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마르크스主義者들은 자신 안에서도 심각한 분열이 일어나 많은 分派와 異端이 나타났는데 마르크스 자신도 晩年에 가서는 “나는 마르크스主義者가 아니다”라고 탄식했다고 한다.

마르크스主義는 世界를 光明과 暗黒·進歩와 反動·同志와 敵 등으로 兩極化하고, 자기의 絶對性만을 주장하는 獨善主義에 빠졌다. 그로 인하여 共產主義者들은 客觀的 정세에 대하여 伸縮性있는 자유로운 判斷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先進資本主義 國家로서 프롤레타리아 革命이 성공한 곳이라고는 단 한곳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千篇一律적으로 資本主義의 위기를 되풀이 하면서, 머지 않아 暴力革命이 일어날 것이라는 허망한 기대를 걸고 있다. 마르크스主義는 그의 이른바 正統性을 고집하면 할수록 점점 더 空論으로 될 운명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라. 後進性

마르크스主義는 오늘날 역사상 그 類例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폭악한 全體主義 및 팽창주의로 되었다.

共產主義는 後進國家였던 獨逸에서 일어나 後進國인 러시아에서 성장하고, 後進國인 아프리카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共產主義는 思想·言論·集會·結社의 自由가 制度的으로 保障된 西歐的인 近代社會에서는 끝내 生命力を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스탈린主義는 現代共產主義의 성장에 가장 적당한 後進社會의 風土속에서 성장했다.

일반 社會가 精神과 物質의 兩面에 있어, 점점 더 발전하고 인간의 本質的인 요구인 自己發展을 위한 자유로운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면 갈수록 現代共產主義의 內在的 矛盾은 共產主義者 및 그들이 支配하는 社會 內部에서 점점 더 강하게 意識되어 갈 것이다.

7. 結 言

世界平和와 社會正義 그리고 人間尊重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共產主義가 國際平和와 질서를 위협하고, 대외팽창과 침략을 주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人權을 유린하고 人間の 尊嚴性을 모독함으로써 씻을 수 없는 歷史的罪過를 범했다는 것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共產主義를 배격하는 이유는,

첫째, 共產主義 理論과 실천의 矛盾, 둘째, 共產主義 원리의 誤謬, 셋째, 자유에 대한 極度の 억압, 넷째, 平和를 위장하여 전쟁을 찬양하는 積習을 들 수 있겠다. 마르크스가 말한 「資本主義의 終末」은 歐美的 先進工業國家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또 앞으로도

발생할 可能性이 없다. 과거 100年의 역사를 더듬어 보건데, 資本主義가 自體의 成熟으로 말미암아 붕괴된 사례는 단 한번도 없었다. 인간을 尊重하는 民主主義의 精神은 資本主義의 矛盾과 飛단을 법과 질서의 테두리안에서 漸次的인 社會改革과 福祉增進 政策으로써 해결하는 방향에서 구현되고 있다.

西歐 資本主義 국가들과 東歐 共產主義 국가들과의 生活水準 격차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다. 共產主義 體制가 經濟的 발전과 生活水準 향상에 성공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相對的으로 人民大衆의 抵抗과 疎外現象이 팽배해지는데, 이러한 現象은 결과적으로 共產黨 一黨體制에 대한 危機를 自招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련과 東歐 共產國家에서의 反體制運動, 自由化運動 등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共產主義 統治이데올로기는 支配階級으로 固定된 共產黨 幹部의 獨裁體制와 一人獨裁를 正當化하고, 合理化시키는 하나의 道具로 전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現代共產主義 즉 一黨獨裁政治의 共通된 現象이 되고 있다.

오늘날 共產主義가 문제시되는 사회는 마르크스의 革命圖式하고는 反對로 先進資本主義 사회가 아니라 내부 불안을 안고 있는 開發途上國家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經濟的으로 資本主義를 택하고, 政治的으로는 民主主義를 택하면서 아직도 發展의 初期段階에 있는 사회에서는, 共產主義者들의 宣傳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첫째, 資本主義社會의 競爭에서 불안을 느끼는 사람, 둘째, 自由競爭 體制에서 副作用으로 일어나는 物質萬能主義에 抵抗을 느끼는 사람, 셋째, 社會적으로 參與할 기회를 잃고, 높아진 기대와 欲求의 充足이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 넷째, 資本主義 體制의 長點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속에 存在할 수 있다.

그러나 民主福祉社會로 發展한 先進資本主義 國家의 경우, 共產主義는 이제 문제시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共產主義는 資本主義의 代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立證된지 이미 오래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인식해야 할 교훈은 共產主義的 暴力革命이 人類共同의 宿題인 人間不平等의 解消를 결코 解決할 수 없다는 歷史的 記錄과 경험들이다. 이제 共產主義 革命이 人間의 自由와 正義와 平等을 실현하는 代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知識과 價値로서 自覺한 우리가 志向할바 態度는 무엇인가? 안정된 民主主義를 制度化하고, 이 더전위에 高度의 民主·福祉社會를 건설하여 民族이 繁榮하고, 나아가서는 統一을 이룩함으로써 北韓同胞를 압제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民族的 宿題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